

# 인촌의 백년대계, 석조 고딕양식 신교사로 안암동 시대를 열다

##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4

### 안암동 시대의 개막과 고대 석탑의 발흥: 보성전문의 신교사 1933.9~1934.9 (상)

보성전문을 인수한 인촌에게 당면과제는 신교사 건립이었다. 인촌은 보전설계를 민족건축가에게 맡기고자 했다. 30대의 조선인 건축가 박동진이 이 일을 맡았다. 인촌과 박동진은 영구적 재료인 돌, 그것도 우리 지역성을 반영한 화강암으로 건물을 지었다.

안암동 시대 이전, 보성전문 초기의 건축적 상황은 천도교를 비롯한 각계의 도움에 빚진 바 크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정했던 보성전문의 물리적 기반은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이 1932년 3월 보성전문을 인수한 후에야 극복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운동에 뜻을 품고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해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중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전신)를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전문학교(궁극적으로는 민립대학)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1929년 12월부터 1931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유럽과 미국을 순방할 때 각 나라의 주요 대학들을 시찰했던 것이다.

보성전문 인수 후의 인촌에게 당면 과제는 신교사 건립이었다. 그는 1933년 5월, 현 안암캠퍼스 자리에 전답과 임야 등 모두 62,000여 평의 땅을 매입한다. 송현동 교지의 100배 이상에 달하는 면적이다. 유진오 전 총장은 교지 마련에 대한 인촌의 포부를 '백년대계'라 높이 산 바 있다(《養虎記》, 1977).

#### 인촌과 박동진의 만남

인촌이 신교사의 건축가로 선택한 이는 박동진(1899~1980)이다. 그는 경성고등공업학교(현 서울공대의 전신) 건축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수로 일하고 있었다.

보성전문 설계는 반드시 민족의 기술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촌의 생각이었고, 박동진은 당시 몇 안 되던 조선인 건축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무척 획기적이다. 물론 인촌 역시 40을 갓 넘긴 나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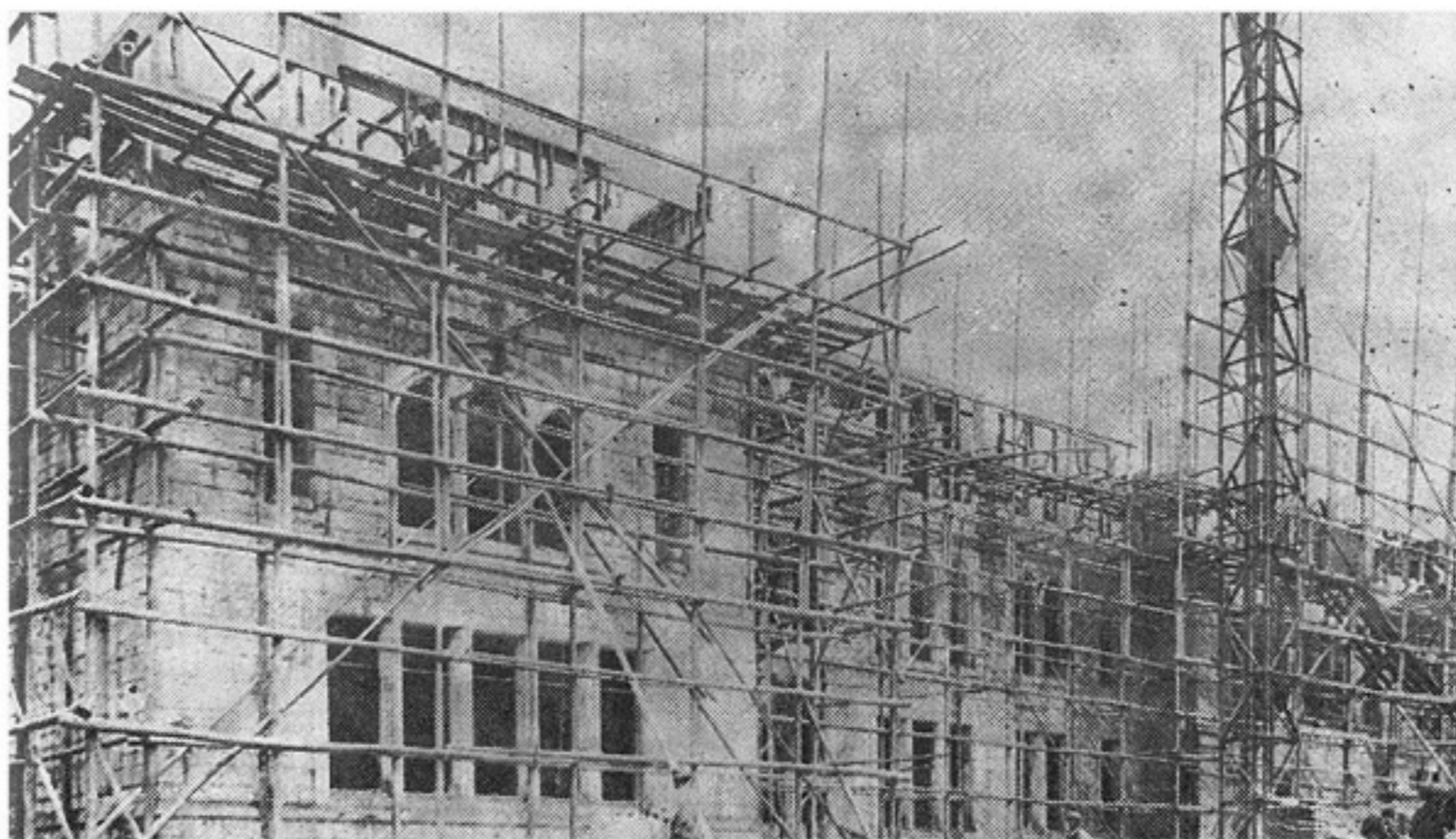
박동진의 회고에 의하면(『GRANITE의辯: 仁村 金性洙 先生과 나』, 《高대新聞》,

1955.5.16) 그들의 만남은 인촌이 구 미시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고, 학교 터의 물색도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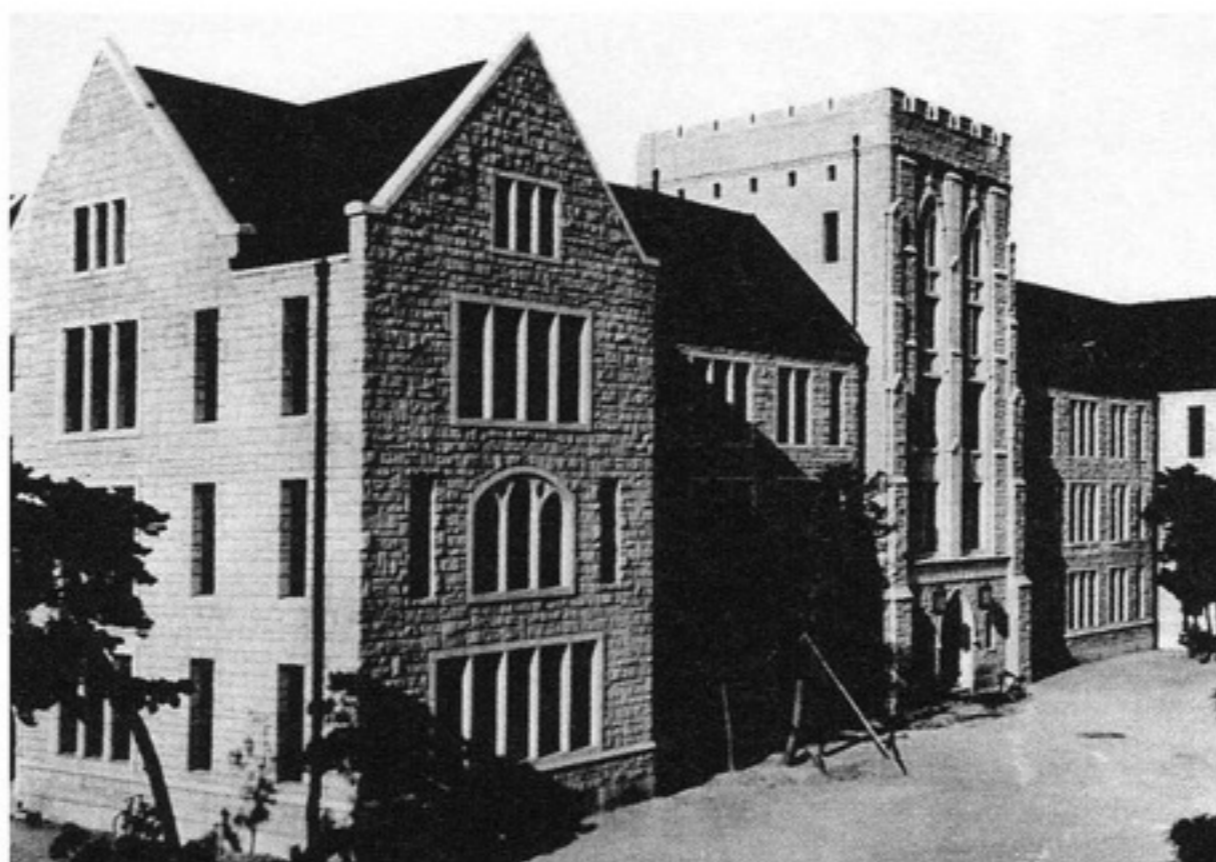
교지를 확보한 인촌은 계동 자택의 신관 2층에 설계실을 차리고 박동진을 기거케 한다. 그리고 두 달여를 동숙하며 설계를 독려했는데, 자신이 각국의 유명 대학

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놓인 터는 원래 양쪽 산자락이 만나는 계곡이었기에, 건물 시공에 앞서 대지의 정지작업이 필요했다. 현재의 인촌 동상 위치까지 흙을 메워 평지로 만드는 토목공사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고 한다.

신교사의 규모는 최대 550명



1933년 시작해 1934년 9월에 완공된 보성전문의 안암동 본관 건설공사. 콘크리트 거푸집(좌측상단)과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 지지대(우측의 철탑)는 이 건물이 단순 석조가 아님을 보여준다. 본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암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1934년 9월 완공 직후의 본관 사진. 인촌과 박동진이 신교사를 건축하며 선택한 석조 고딕양식은 이후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특징짓는 요소가 되었다.

에서 찍어온 환등 사진을 보며 자주 토론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 16mm 무비카메라와 교육시설을 찍은 필름, 환등기 등을 지참한 바 있다(仁村紀念會, 《仁村 金性洙傳》, 1976).

안암동 신교사(1933.9~1934.9), 즉 현재의 고려대학교 본관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동남쪽을 향해 넓은 터를 바라보도록 배치된다. 당시 주변에는 산과 논밭, 그리고 여기저기 세워진 초가집들만이 전경을 이루

으로 가정된 재학생 수에 근거했고, 교장실, 회의실, 중강당이 각각 하나씩, 사무실과 응접실이 두 개씩, 그리고 교실 15개소 등이 필수 공간으로 요구됐다. 이로써 설계된 건물은 건축면적 약 950㎡(290평)에 지상 3층(중앙탑부 6층)으로서 합이 3,223㎡(975평)였다.

그러나 설계과정 중 4층 다락을 교수연구실로 추가해, 완공된 건물의 실제 연면적은 3744㎡(1134평)에 이른다.

더불어 32평의 부속건물을 뒤

편에 세워 숙직실과 소사실, 난방 기관실로 사용했다. 건물 자체의 공사는 9개 지명입찰자 가운데 최저가로 낙찰된 일본인 건축업자 후지타 고오기(藤田幸二郎)에게 맡겨졌다. 당시 조선에서 일하던 후지타는 무척 성실하고 겸손한 이었다고 전한다(俞鎭午, 《養虎記》).

#### 화강암의 강인함, 고대의 상징

그간 비좁은 건물을 전전하던 보성전문에게 이 같은 규모의 교사

리트가 기본 골격을 이루며 외장재로 화강암이 사용된 것이다. 당시 조선건축회에서 발행하던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보성전문학교 신축공사 설계개요』, 1935.9)은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공사 중의 사진도 콘크리트 거푸집(좌측상단)과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 지지대(우측의 철탑)를 통해 콘크리트 골격의 존재를 유추케 한다. 그렇다고 이 건물의 석재 외장이 현재의 공법처럼 얇은 화강암판을 철물로 벽체에 부착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화강암은 단위 석괴로 준비돼 시멘트 모르타르를 매개로 쌓이는데, 어느 정도 스스로의 무게로써 자립이 가능한 형식이다. 고로 안암동 신교사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암의 복합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을 석재로 유지한 것은 여전히 중대하다. 보성전문의 신교사를 석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촌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돌을 재료로 선택한 것이 건축가의 건의에서 나왔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박동진이 자신의 회고담에서 서술한 비일관적 언설에 기인한 듯하다.) 그가 보성전문 인수 전, 해외 유명 대학을 순방했던 일은 석조건물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된 계기였다.

인촌이 방문한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프랑스의 소르본, 독일의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체코의 프라하, 미국의 콜롬비아, 하버드, 예일 등이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세계의 우수 대학에 못지않은 학교를 원했고, 이를 위해 영구적 재료인 돌로 건물을 짓길 바랐던 것이다. 이태리처럼 대리석이 많이 난다면 대리석을 사용하겠지만 우리에게 대신 화강암이 풍부하다. 그리고 화강암은 일본 목조건축의 유약성과 대비되는 강인한 면모를 지녔고 우리의 지역성을 반영하니 인촌과 박동진이 선택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공사에 사용된 화강암은 근처 중앙동의 채석장에서 온 것이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짐)

가 주어진 것은 가히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허나 그 규모만이 팔목할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물의 '석조 고딕양식' 이야말로 안암동 신교사와 앞으로의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특징짓는 중요한 인자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재료 선택과 건축양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이 건물의 구조가 통상 인지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석조가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무근콘크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